

# 어두 경음화에 관한 사회 언어학적 고찰

## -언어 변화의 측면에서-

이 미 재

### 1. 들어 가기

끊임없이 변화하는 언어 변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아직까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우리말의 경우 15세기 국어로부터의 말본 체계의 변화를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은 원인이 밝혀졌다(허용 1983: 460~461). 첫째는 말하기에 들이는 노력을 덜기 위한 것, 둘째는 말본적인 어형의 통일을 지향하는 유추작용, 셋째도 굴곡 범주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려는 심리 작용, 넷째로 말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따른 말할이의 마음의 태도, 다섯째는 체계의 압력, 여섯째는 음운 변화의 결과로 말미암아 일어난 말본 형태에 대한 영향 등 여섯 가지의 변화 원인을 들고 있다. 이 여섯 가지의 원인은 언어 내적 요인과 언어 외적 요인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언어 내적 요인은 말본의 체계에 관한 것으로 둘째 다섯째 여섯째가 그것이고 언어 외적 요인은 첫째 셋째 넷째라고 분석된다.

우리말의 경우 음절의 체계는 아래와 같다.

1) 국어의 음절 구조 : (ㄱ) V, (ㄴ) CV, (ㄷ) VC (ㄹ) CVC

음절과 음절이 연결될 때 자음이 둘째 음절의 첫 구성소가 될 때는 아래의 경우이다.

2) (ㄱ + ㄴ) V + CV  
 (ㄴ + ㄴ) CV + CV  
 (ㄷ + ㄴ) VC + CV  
 (ㄹ + ㄴ) CVC + CV  
 (ㄱ + ㄹ) V + CVC  
 (ㄴ + ㄹ) CV + CVC  
 (ㄷ + ㄹ) VC + CVC  
 (ㄹ + ㄹ) CVC + CVC

위와 같은 환경에서 둘째 음절이 첫 자음(C) 즉 평음 ㄱ, ㄷ, ㅂ, ㅅ, ㅈ 이 경우 ㄱ, ㅈ, ㅊ, ㅍ, ㅊ으로 변화하는 현상이 어중 경음화이다. 이 어중 경음화는 앞에서 논의한 언어

변화의 언어 내적 변화의 한 예로 그간 많은 학자들이 연구의 초점이 되어 왔다. 어휘론적 분석을 위주로 한 이희승(1965 : 171~172), 남광우 (1984), 이응백(1966), 김영송(1975), Chung, K. (1980: 30~46) 및 변형 생성 문법 틀 안에서 설명한 Kim, Y.K.(1974), Ahn, S.C(1985 : 35~69), Sohn, H.(1977)와 격 문법 틀 안에서 설명한 오정란(1987)과 Cook, E.D. (1982) 및 이강훈 (1984)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어두 경음화 C V(C)로 시작하는 경음화에 대해서는 설명이 거의 없는 편이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음성, 음운학적 조건 때문에 경음화가 일어나는 언어 내적 현상인 어중 경음화는 제외하고 언어 내적 요인이 없는(어두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어두 경음화 만을 고려 대상으로 삼는다.

## 2. 접근 방법

언어 변화의 언어 분석 대상을 추상적이고 동질적인 언어 체계에 한정시켜 언어 구조의 차이를 가려오는 변화의 결과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Chomsky류의 변형 생성 문법 학자들의 시각과는 달리 사회 언어학적 접근은 진행중에 있는 언어 변화로 관찰하여 귀납적으로 일정한 시기 및 일정한 사회내에서 발생한 변이형을 공시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언어 변화를 연구한다. 구체적 방법론으로 William Labov가 New York시와 Martha's Vineyard섬에서 적용한 방법으로 말씨의 형태에 따른 분석<sup>1)</sup>, 제보자의 성별에 따른 분석, 및 제보자의 사회계층간 분석을 설문지와 녹음기를 사용하여 채집 분석했다.

제보자들은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덕 1, 2, 3리 주민이며 이 마을에는 안동 김씨 양반 및 그 일족에 하부구조를 이룬 상민이 살고 있다. 이 마을은 수원에서 버스로 30분 정도 소요되는 곳에 있고 농작이 주요 산업이지만 최근 수출 제조업체가 들어서 있는 공장지대와 인접해 있다. 인터뷰 때는 <표 2>에 있는 단어를 단어 읽기(WLS) 문장 읽기(SRS) 구절 읽기(PRS) 대담유도형(ET) 및 평상적 말씨(CS)의 각 형태를 이용하여 유출해 낸 것이다.

## 3. 어두 경음화의 특징

- 3) a. 그가 돈을 세다.  
b. 그가 힘이 세다.

위의 문장에서 3) a와 b의 세다는 언어적 환경(음성·음운적)이 같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3) a는 경음화 하지 않는데 3) b는 경음화하여 세다를 '세다'로 발음한다.

- 4)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동생, 시누이, 시아주버니, ... (시집식구의 호칭)

4)의 시집식구 호칭에서 시어머니의 시만 경음화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시어머니도

1) 이부분의 자세한 설명은 이미재 박사 학위 논문 언어변화에 관한 사회 언어학적 연구 (1989: p.28~51)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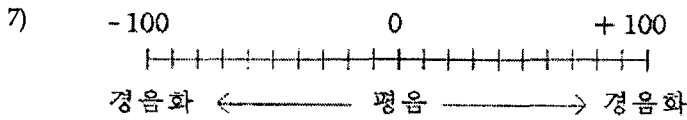
‘씨에미’ 또는 ‘씨미’로 의미가 (시어머니의 품격을 일부러 격하시킬 때) 격하 될 때는 경음화가 강하게 나타난다. 즉 위의 예를 통해서 볼 때 경음화는

5) 화자의 심리를 극대화 해 준다.

돈을 세다는 (count) 정도를 표시하는 동사가 아니고 행위의 완료를 표시한다. 반면 힘이 세다는 힘의 정도를 표시하기 때문에 화자가 묘사하는 대상의 힘의 정도를 극대화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두 방향으로 진행되는 데 심리 상태의 긍정적 방향과 부정적 방향을 다 나타낸다.

6) 화자의 심리를 두 방향으로 극대화 한다.

아래와 같은 저울에서 평음은 보통의 상태를 표시하지만 경음화된 음은 양극화된 심리상태를 표현한다.



시집식구 호칭 가운데 시어머니가 가장 강하게 경음화 경향을 나타낸 데다가 그것이 비하되면 될수록 더욱 경음화 경향이 강해지는 것은 경음화의 부정적 심리의 반영이라고 생각된다. 즉 시어머니의 혹독한 학대나 무정에 대한 간접적 반항의 표현인 것이다. 긍정적인 방향의 극대화는 정확성을 강조하는 반면 부정적 방향의 극대화는 ‘점잖치 못하다’든가 은밀한 권위의식 covert prestige와 ‘남성적’이라는 의미 자질을 갖게 된다.

8) ‘씨어머니’ ‘씨에미’ ‘씨미’

그러므로 경음화된 표현은 비유적인 의미를 갖는다.

9) ‘쪽집게’같은 접장이

고래 힘줄처럼 ‘질긴’ 소고기

즉 쪽집게와 질긴의 평음보다는 화자의 심리상태의 적절한 표현으로 대동하고 있는 비교대상이 접침으로서 경음화된 표현을 즐겨 쓰게 된다.

다른 이유는 의미적 관점에서 동작이나 감정의 격렬함을 표현하려는 한 형태로 경음화를 취하는 경우이다. 여유있던 농경시대에서 갑작스런 산업화와 도시화의 경향은 보다 정확하고 강한 표현의 필요성을 대두시켰다. 의사 소통에 있어서 정확성을 강조해야한다고 느끼는 명사 ‘쪽집게’와 ‘꼬두밥’, ‘짜릿짜릿’과 ‘뻘쩍 뻘쩍’은 경쟁이 심한 산업 사회에서 강력한 의사 전달에 대한 만족감 때문인지 높은 경음화 경향을 보였다.

셋째 경음화는 apparent time<sup>2)</sup> 대에서 보면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년층에서 젊

은 층으로 올수록 경음화 경향이 뚜렷하다. 小倉進平(1944)과 金亨奎(1974)의 방언 조사는 지금으로부터 약 45년과 15년의 시간적 간격을 보여주며, 이들 둘 사이에는 30년이란 한 세대의 시간간격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小倉進平(1944)에는 함경북도 방언에 나오는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경음화가 일어난 자료를 거의 찾을 수 없는데 반해 金亨奎(1974)에는 小倉進平(1944)의 자료와 비교해 볼 때 105개의 어휘가 더 나타난다. 金亨奎(1974: 83)는 105개의 경음화된 방언형의 예로 들고 국어사적인 관점에서 경음화로 이미 조선 초기 또는 그 이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조선 중기 이후 그 출현 빈도가 잦아져 마침내 오늘날의 경음화 어휘로 정착되었고 특히 105개의 경음화된 어휘는 지역적으로 경상남북도와 전라남북도 남부 지방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즉 우리나라의 경음화는 지역적으로 남쪽에서부터, 연령적으로는 젊은 층에서부터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4. 세대별 경음화 분석

<표 1> 세대별 경음화 정도

젊은 층	- 88%
장년층	- 67%
중년층	- 40%
노년층	- 29%

20세까지를 청소년층, 21세에서 35세까지를 장년층 36세에서 55세까지를 중년층, 56세 이상을 노년층으로 분류한 세대별 경음화 정도에서도 분명한 추이는 젊은 층으로 갈수록 강했다. 어휘 확산적 측면에서 개별 어휘의 경음화 정도가 달랐다. 경음화가 많이 되는 순서대로 배열하면 <표2>와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경음화 된 발음이 표준발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와 자신의 실제 발음이 경음화 되어 버린 경우와의 비율은 167:402로 2.4배 이상이 경음화 되어 발음된다.

<표 2> 어휘별 경음화의 정도

구분	자신의 발음	표준 발음으로의 인식도
쪽쪽계	98%	33%
꼬두밥	90%	28%
꼬추	94%	28%
까스	90%	30%
짜릿짜릿	95%	38%
뽀짝뽀짝	86%	30%
쌍놈	69%	8%
꿍추	68%	6%
질기다	19%	0.5%
짜다	14%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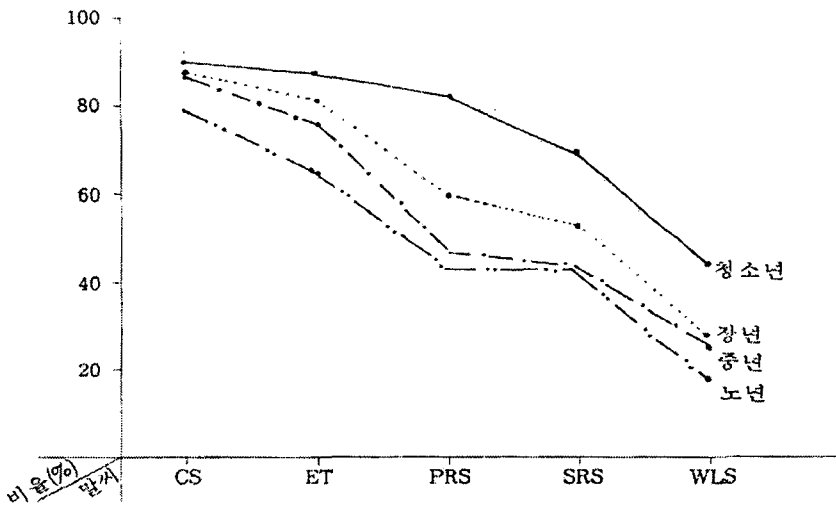
- 2) apparent time이란 real time의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언어사회에서의 언어변화를 연구할 때, 나이든 세대와 젊은 세대의 언어차이가 언어 변화의 결과라고 보는 데에서 나온 것이다.(Trudgill 1980:88~98)

'쌍놈'과 '꼼추'의 경우 자신들은 경음화 된 발음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고한 제보자들 대부분이 상민 출신인 것은 흥미롭다. 이러한 현상은 물론 이들 어휘 중 약간은 제보자의 출신 신분을 노골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제보자가 판단한 때문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제보자의 심리적 열등감이 실제의 언어 현실에 투영된 경우라고도 할 수 있다.

## 5. 말씨에 의한 경음화 분석

말씨의 형태와 경음화 사이의 상관 관계를 보면 평상적인 말씨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대담유도형 질문에 대한 답에서 두 번째로 많고, 그 다음이 구절 읽기, 문장 읽기, 단어 읽기의 순서이다. 즉 제보자가 무의식적인 순간에 경음화를 가장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층은 말씨에 상관없이 경음화의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가장 자연스런 말씨인 평상적인 말씨에서 세대에 관계없이 거의 비슷한 정도의 높은 경음화 경향을 찾을 수 있었다. 어떤 중류층 노인은 단어 읽기에서 '꼼추'나 '쌍놈'의 발음을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런 말을 쓰면 안 된다고 호통을 치는 내용 중에 사용한 두 단어는 모두 경음화 된 발음이었다. 이는 평상적인 말씨에서 거의 모든 세대를 막론하고 경음화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예라 할 것이다. 그러나 <도표 1>에 나타난 것처럼 평상적인 말씨를 제외하고는 나이가 많음에 따라 경음화의 정도는 점차 낮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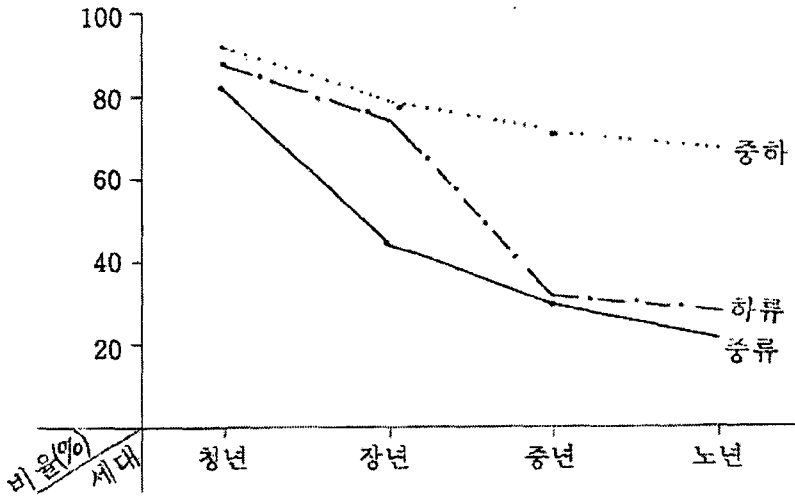
<도표 1> 말씨와 세대에 의한 경음화 정도<sup>3)</sup>

이것은 물론 나이가 들수록 말과 행동이 점잖아야 한다는 전통적인 생각과, 경음화된 발음은 점잖지 못하다는 심리의 반영 탓으로 보인다. 그래서 제보자 중에서 경음화 된 발음이 표준 발음이지만, 본인은 경음화 되지 않는 발음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한 경우는 모

두 하류층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이는 비록 신분은 하류층이지만 경음화된 표현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점잖고 양반다운 모습을 표시하려는 심리적 태도의 반영이다. 그렇게 느끼는 단어는 '곱추'와 '상놈'인데 그 이유는 '곱추'나 '상놈'같은 감정적 개입이 심한 거친 말을 경음화까지 하여 자신의 신분이나 위신이 손상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젊은 세대에서 말씨에 상관없이 경음화의 정도가 높다는 것도, 그들이 나이든 세대보다 체면이나 위신을 덜 의식한다는 맥락에서 이해 될 수 있다.

### 6. 사회 계층별 분석

계층과 세대에 따른 경음화의 정도를 도표로 나타내면 <도표 2>와 같다. 이 표를 보면 계층의식과 경음화의 정도가 상관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류층의 경우, 장년층이상은 40%이하의 경음화를 보이는 반면, 하류층의 장년층은 80%정도의 경음화 경향을 보이다가 중년 이후에서야 40% 정도로 낮아지고 있다.



<도표 2> 계층과 세대에 의한 경음화 정도4)

3)

말씨 \ 세대	청소년	장년	중년	노년
정상적인 말씨(LS)	92	90	89	80
대답유도형(ET)	90	82	75	66
구절읽기(PRS)	83	60	49	44
문장읽기(SRS)	70	54	45	44
단어읽기(WLS)	45	30	28	19

이러한 현상의 이유로는 우선 중류층의 장년 이상은 양반이라는 자신의 출신 성분을 지키려는 강한 의식 때문에 경음화 되지 않은 점잖은 표현을 사용한다는 심리적인 면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하류층의 장년층은 해방 이후 출생한 세대이므로 자신들의 신분에 대한 의식이 강하지 못하여 80% 정도의 높은 경음화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중년 이상의 세대는 아직도 자신의 신분과 양반의 신분 차이를 잘 알고 있으며, 현재의 독립적인 가구를 마련하기 이전에는 주로 마을의 대가에 하부 구조를 이루며 살았기 때문에 양반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양반의 사회적 가치의 표현인 여유있는 말씨와 경망스럽지 않은 행동은 전통 미풍·양속으로 양반 계층에 스며있다. 이들은 양반들의 언어 생활을 모방함으로써 자신들의 신분을 감추거나 아니면 남에게 좀더 나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한다. 중하류층은 새로 토지를 마련했거나 주로 상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경쟁적인 면이 많고 전통적인 계급 보존 의식보다는 새로운 가치인 부의 축적과 효율성을 더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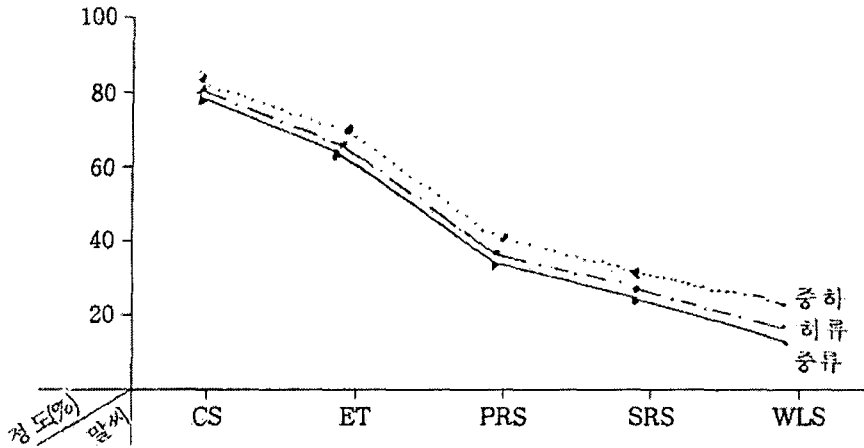
그렇기 때문에 Labov의 과도수정(hypercorrection)이 여기에서 나타난다. 하류층의 제보자들이 경음화 된 발음이 옳은 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경음화 되지 않은 발음을 사용한다고 말함으로써 경음화에 대한 과도수정 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이는 Trudgill(1975 : 99)이 Norwich에서 노동자 계층이 언어 변화(innovation)에서 고립되었다고 설명한 것과는 다르다고 본다.<sup>5)</sup> 이 집성촌에서는 변화에서 고립되었다기보다는, Labov 관찰에서 New York 중하류층 부인들이 자기보다 상류의 계층을 갈망하는 말씨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상민 계층들은 오히려 중류 양반 계층 말씨를 닮아 가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계층과 말씨의 상관 관계로 보아도 비슷한 현상을 알 수 있다. 아래의 표를 보면 말씨의 형태에 따라서 경음화의 정도가 크게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상적인 말씨일수록 경음화의 정도는 어느 계층을 막론하고 높다. 말씨에 대한 의식이 있을수록 경음화 정도는 약해지지만, 중하층은 여전히 현저한 비율로 경음화 된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중하층이 비표준어인 경음화의 경향을 주도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4)

사회계층 세대	중 류	중 하	하 류
청소년	82	92	88
장년	45	79	79
중년	30	73	32
노년	23	69	28

5) Trudgill(1975 : 99)은 표준 영국영어(Received Pronunciation)에서 멀어져 가는 언어 변화는 상위 노동 계층(Upper Working Class)와 중위 노동계층(Middle Working Class)가 주도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Labov(1966)는 중상계층을 회구하는 중하계층(Lower Middle Class)이 권위적인 말씨를 모방함으로써 언어변화가 일어난다고 했다.



<도표3> 사회 계층과 말씨에 대한 경음화 정도 6)

### 7. 성별 분석

Trudgill(1975)은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언어로써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고자 하는 경향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여성이 직업(career)여성에 비해 자신의 외모에 더 신경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들은 남성보다 낮은 사회적 지위를 보상받기 위해 언어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표준어 사용에 있어서도 여성들이 남성보다 높은 표준어 사용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 남성 가운데에서는 노동자 계층에 속하는 남성들이 특히 자신들의 남성다움을 과시하기 위해 비표준어를 고의로 사용하며, 이것은 남성의 사회적 지위보다는 남성들 세계의 유대감(Solidarity)를 표현하는 '은밀한 권유'(Covert prestige)의 한 예가 된다고 한다(Labov 1966a:495), (Trudgill 1975:92).

우리나라에서 경음화된 발음은 공공연하지는 않지만, 은밀하게 남자의 남성(Masculinity)과 권위를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평상적인 말씨의 경음화에 대한 자기 평가(Self-evaluation Test)결과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6)

사회계층 말씨	중류	중하	하류
평상적인말씨	80	84	81
대답유도형	64	70	65
구절읽기	35	41	36
문장읽기	24	31	27
단어읽기	12	22	15



&lt;표3&gt; 경음화에 대한 제보자의 자기평가 결과 (%)

구분	전 체	남 자	여 자
과대보고	15	58	19
과소보고	36	14	24
정확한보고	48	28	57

위의 도표를 보면 58%의 남자들은 경음화를 하지 않았을 때조차 경음화 한다고 과대 평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평상적인 말씨에서 남자들에게는 경음화가 은밀한 권위로 작용하여 사용빈도가 많아짐으로써 언어 변화를 주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sup>7)</sup> 한편 경기도 출신의 운전사로서 고용 운전경력(개인 택시 소유자는 제외)이 3년 이상 되는 기사들에게 경음에 대한 자신의 발음과 표준 발음을 체크해 본 결과 100%가 경음화 경향을 나타냈다. 이 사실은 노동자 계층인 고용 운전사들 사이에서도 경음화가 은밀한 권위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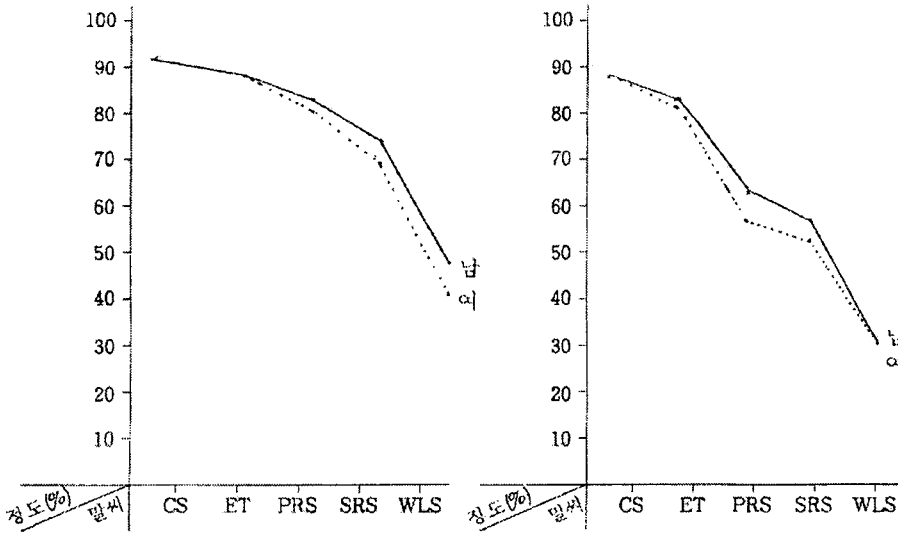
한편, Labov(1966 a : 108)에서는 뉴욕의 사회적·경제적 구조 때문에 공식적인 말씨의 경우, 중류층의 언어가 권위로 갖는다고 하면서 중류층의 중년 여성들은 이 때문에 표준어를 사용하며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표시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런 점에서 보면 여성들은 자신들의 언어와 사회적 지위와의 상관 관계를 남성에 비해 훨씬 민감하게 느끼고 있으며, 이 때문에 말씨를 쉽게 바꾸거나 과도 수정을 하고 또한 같은 계층의 남성에 비해 낙인형(Stigmatized form)에 대한 기피 경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Labov 1972b, Trudgill 1975)

우리 나라 사회의 남성상에는 두 가지 가치가 양립하고 있다고 본다. 하나는 전통적인 교육을 받고 전통적인 가치를 지키려는 양반 및 노년층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남성상인 점잖고 무게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가치관과, 다른 하나는 현대 교육과 서구 문물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신속하고 남성적인 남성상이다.

이처럼 상이한 두 가지 가치는 언어에도 반영되었다. 중년 및 노년층 남자들은 전자의 가치관을 지속하려고 하고 청소년층은 후자의 가치관을 고수하려고 한다. 그러나 여자들은 아직도 남자들이 갖고 있는 전자의 가치관이 강요하는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남녀의 역할이 이처럼 뚜렷하게 다른 사회에서 남녀가 갖는 언어 수용의 변이형의 분포를 알아보기로 한다.

경음화도 위에서 살펴 본대로 은밀한 권위로 인하여 중하류층, 청소년 남자층에서 가장 심하다. 말씨의 형태에 따라 경음화의 경향을 남녀 세대별로 보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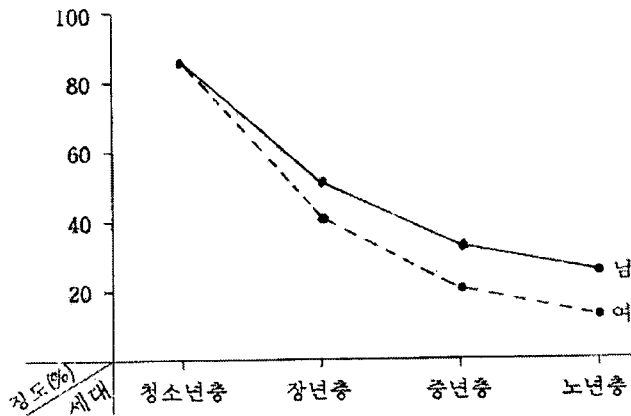
7) 이러한 은밀한 권위(Covert Prestige)는 Labov(1966 : 328)의 언어변화의 두 유형중 '아래로부터의'(from below)변화의 요인이라고 하겠다.



〈도표 4〉 말씨와 성별로 본  
청소년층의 경음화 정도

〈도표 5〉 말씨와 성별로 본  
장년층의 경음화 정도

평상적인 말씨에서는 노년층에서 여성이 경음화를 좀 적게 할 뿐 모두가 심한 경음화 경향을 보이는데, 말씨의 형태가 의식적으로 되어 감에 따라 남녀간의 경음화 정도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즉 중년층과 노년층으로 갈수록 여성의 경우에는 경음화를 기피하고 있다. 사회 계층과 세대 및 남녀별로 분석해 보면, 중하층과 하류층에서는 남녀의 차이가 거의 없는 데 반해, 중류층의 장년 및 중·노년층 여성은 남자보다 경음화의 정도가 낮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도표 6〉 세대와 성별로 본 중류층의 경음화 정도

이 표를 보면 중류층의 경우 청소년층을 제외한 계층에서는 여성들의 경음화 정도가 남성보다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여성들이 자신의 품위(Prestige)를 지키려는 의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Labov(1966 b : 108)가 격식적인 말씨에서 중류층 여성이 더 권위적인 말을 하려고 한다는 연구 결과와 궤를 같이 하는 결과이다. 즉 Labov(1966 a : 495)와 Trudgill(1975 : 92)은 노동자 계층의 문화는 남성성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거칠고 강한 반면, 여성은 세련을 대표한다고 했다.

Trudgill(1975 : 91)은 직업이 없는 여성일수록 여자의 신분이 안정되지 못하여 남자에게 순종적인 반면, 언어를 통해서 신분을 노출시키길 원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양반의 특권을 누려온 집성촌에서는 위와 같이 신분을 표시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여자는 언행이 여자다워야 한다는 전통적 가치 때문에, 중류층의 나이든 여성들은 강하고 거칠며 남성적인 암시가 강한 경음화에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특별히 감정 개입이 심한 '상놈'과 '곱추' 그리고 경음화의 시작 단계에 있는 형용사 '작다'와 '질기다'에 대해 중류층 여성들은 거부감을 크게 나타냈다. 중류층 여성들은 새로이 시작되는 경음화와 감정적 개입이 강한 경음화의 수용에 있어 소극적인 반면, 남성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 8. 결론

어중 경음화와 달리 언어 외적 연관에 의하여 생긴 어두 경음화는 화자의 심리적 사회적 태도를 반영한다고 생각된다. 어두 경음화는 두 가지 방향, 즉 긍정적(+) 방향과 부정적(-) 방향으로 전개되어 긍정적 방향의 것은 화자의 사물에 대한 정확성을 반영하고 부정적 방향은 '점잖치 못함', 즉 Covert Prestige인 남성성과 비속함을 나타내기도 한다. 즉 경음화함으로써 의미자질이 변함에 따라 그 자질이 적극적이고 우세하면 언어 변화의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어두 경음화의 경향은 젊은 세대로 갈수록,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적극적으로 양반인 중류층보다는 하류 노동자층에서, 공식적 형태의 말씨보다는 일상적 말씨에서 활발히 전개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

청소년층		장년층		중년층		노년층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82	82	50	40	38	22	28	18

## 참 고 문 헌

- 김형규(1974), 「한국 방언 연구」, 서울대 출판부.
- 小倉進平(1944), 「朝鮮方言の研究」, 岩彼書店.
- Labov, W. (1963), The Social Motivation of a Sound Change, *World* 19-3 : pp. 273-309.
- \_\_\_\_\_ (1966a), *The Social Stratification of English in New York City*. Washington D.C : Center for Applied Linguistics.
- \_\_\_\_\_ (1966b), Hypercorrection by the Lower Middle Class as a Factor in Linguistic Change . In W. Bright (ed.), *Sociolinguistics*. The Hague : Mouton.
- \_\_\_\_\_ (1972a), *Sociolinguistic Patterns*,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Philadelphia.
- \_\_\_\_\_ (1972b), *Language in the Inner City : Studies in the Black English Vernacular*,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Philadelphia.
- \_\_\_\_\_ (1972c), "Some Principles of Linguistic Methodology", *Language in Society* 1 : 97-120.
- Trudgill, p. (1974), *The Social Stratification of English in Norwic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75), Sex Covert Prestige, and Linguistic Change in the Urban British of Norwich, Reprinted in B. Thorne and N. Henley(ed.), *Language and Sex: Difference and Dominance*, pp. 88-104.
- \_\_\_\_\_ (1980), *Dialectology*,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